

돼지고기도 등급표시제 의무화해야

업소마다 가격 제각각... 소비자 선택권 무시

개고기 원산지표시 대상 안돼 비공개 '불안'

한 달에 한 두 차례 외식을 하거나 수시로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음식점의 판매 음식이나 식재료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

먼저 식당에 가서 직접 먹는 개고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어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우선 개고기를 재료로 한 보신탕을 먹을 때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말 이게 개고기가 맞는 것인지, 개고기가 맞다면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유통기한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 알고 있다. 한국 문화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고, 관련 식당도 상당히 많다. 국민들이 상식 먹는 음식이라면 보건상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의 품질 상태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종 인터넷에서는 중국산을 수입해 국산 개고기로 둔갑시킨다는 건장이나 질병 유무를 알 수 없는 개를 재료로 이용한다는 확인 불명의 말들이 떠돌고 있다. 이 때문에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을 다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보신탕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몰라야, 현실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

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 음식의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부들이면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업소마다 제각각인 돼지고기의 가격이다. 얼마 전 대형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목살 부위 100g를 1050원 가격으로 구입했다. 일주일 후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목살을 100g당 2000원에 샀다. 집앞 정육점에서는 100g당 1500원에 사기도 했다.

도대체 돼지 고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가격이 싼 곳의 판매원에 물어봤더니, 요즘엔 돼지고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면서 다른 가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싼 곳은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점원은 세일기간이라서 그런다고도 한다.

가격이 비싼 곳의 점원은 정정돼지라서 시설 및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값싼 돼지고기는 축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 값이 쌀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명들을 하지만 모든 답들에 신빙성 있는 근거는 하나도 대지 못했다.

국민의 대표 음식인 돼지고기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돼지고기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등급제는 시행됐지만 의무화가 되지 않은데다, 이를 어겨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등급제가 있으나 마나하다.



돼지고기 값이 정육점이나 할인점, 백화점 등 판매하는 곳마다 제각각인데다 품질 등급 분류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주부들은 돼지고기도 등급제를 실시하면 유통도 투명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값비싼 소고기에 비해 저렴한 돼지고기는 서민들의 이용율이 더욱 더 높다. 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제 의무화가 말로 선진 방식의 소비자 정책이고,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돼지고기 등급제 의무화하면 일부 업소들의 무분별한 고가 정책을 막을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시민기자 김정미>

광주은행-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전자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로부터 서민보호를 위한 홍보와 금융 행사를 벌였다. 이날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그콘서트 형식으로 사기극을 재연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광주은행은 캠페인과 함께 서민금융 부스를 설치, 서민대출 관련 일대일 상담을 하며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고통을 듣고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민기자 최혜인>



부족했던 가족간 대화 나누세요

수능 끝난 고3, 알차게 보내려면

전공 결정하지 못했다면 적성·관심 고려해 선택

독서는 기본...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수능시험이 끝났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전력 질주해 온 고3 수험생들엔 그야말로 해방의 시간이다. 아직 수시 2차와 정시가 남아있는 하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뒤로 밀쳐 두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남은 고교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꼭 짜인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고교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먼저, 자신에게 딱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 학생들은 우울한 마음으로, 잘 나온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계획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 보면 신체리듬도 깨지고 정신적으로도 공허해질 수 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신을 위한 것의 으뜸은 독서다. 아무래도 수능공부는 읽기보다는 암기하고 문재풀이가 중심이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읽기-쓰기가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휘력과 표현력이 필요하고 두툼한 책을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서도 읽어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 길러진다.

독서 계획은 자신의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짜는 것이 좋다. 평소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책부터 시작한다. 가까운 서

점에 들러 눈에 들어온 책부터 읽기 바란다. 책을 자주 읽는 학생이라면 두툼한 '고전'을 권하고 싶다. 고전에는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양분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 고전을 읽기로 하였다면 청소년 판이나 요약본 보다는 원본이나 완역본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 인문학적 고전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고전을 읽는 것도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는 전공탐색과 전공준비 활동도 있다. 수시를 통과한 학생이라면 자신이 합격한 대학을 방문하여 학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입학 전 해야 할 공부들을 챙겨보는 것도 좋다. 나아가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 각종 박람회 등을 관람하는 것도 시야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수능 점수나 내신 점수에 맞추어 학과를 결정하기 보다는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보고 노력한다. 점수에 맞추어 진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을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당장은 한 단계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졸업 후 자신의 특성, 흥미, 적성에 맞는 직업세계에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하거나 멀리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틈나는 대로 부모님을 돌도록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12년간 오직 공부에 전념하면서 생활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모님이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는 것은 일손을 덜어

드린다는 차원도 있지만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가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수험생의 눈치를 보게 된다. 행여나 마음이라도 다칠까봐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기도 한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수능 이후야 말로 조건 없이 봉사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진정한 나눔은 나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수능 이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길 바란다.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남을 도움으로써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감소한다고 하니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시민기자 김선구·광양중학교 진로상담부장>



오천경매투자

- 1. 경매 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는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
- 2. 공동 투자 하실 분**
 - 5천만원 이상 투자
 - 등기로 법적 보장
 - 매매 할때까지 함께 함
- 3. 돈 빌려 주실 분**
 - 제1순위로 설정
 - 낙찰가의 80% 정도
 - 년 15% 이상 이자 지급
- 4. 입찰 대리 하실 분**
 - 원하는 경매물건
 - 최저가로 낙찰
 - 최소 비용으로 처리

(주)오천경매 직통 : 010-3605-5000 T : 525-5000

오피스텔 "급매"

1. 수기동 제일 OP, 29평
2. 20층 중 10층, 전망 좋음, 내부 우수리
3. 현, 사무실 사용중
4. 용자 3500만원 정도 가능
5. 주차편리, 사무실겸 주거가능
6. 시세/감정가 - 1억1천만원 정도
7. 매매가 - 6,5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010-4667-9300